

우체국과 사람들

21세기 선진 우정  
**Digital POST**

특집 | 창간 80주년 기념 본부장과 MZ직원 대담



2026. 7, 8

# CONTENTS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우체국과 사람들

2026년 7+8월호(통권 771호)

발행인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발행일 2026년 7월 1일

발행처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담당 노이지 044-200-8886 / wyeo2o@korea.kr)

편집인 신봉현

편집위원 지현근, 오영진, 임종민, 김귀호

기획 한국우편사업진흥원(담당 조현주 02-2036-0824 / hj1911@posa.or.kr)

편집/디자인 더에이치㈜

04

테마 프롤로그

06

우정가족 앙케트

더운 여름철,  
우정인들의 가방 속 필수템은?

10

To. 본부장 / From. 우디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과  
우디의 특별한 대화

14

아주 보통의 우정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편의 흐름을 지키는  
강남우체국 민일학 주무관

16

우정 포토제닉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우정인의 순간들

18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시 달리고, 다시 미끄러지며  
시흥우체국 이승미 국장

20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I

여바웃 타임

우체국 사보에서 발견한  
시대별 우정인 패션

DISCOVERY

22

헬스레터

'빠른 감량'보단  
오래가는 건강을 찾아서

24

컬처레터

'반려 전성시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즘 일상

26

Dear,

28

우체국 옆 공항

호남권 여행자의 든든한 관문  
우리가 사랑한 광주공항

30

우체국 트립

빛고를 광주의 든든한 이웃  
광주광산우체국

34

우체국 행복나눔 소식

음악이 머무른 저녁,  
가족의 시간이 깊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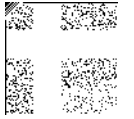
38

우정 포커스

한 해의 결실을 나누고  
우정의 내일을 다짐하다

RECOVERY

이 코드는 활자가 소리로 전환되는 '보이스 아이'입니다. 인쇄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것으로 아이엠피 설치 후 카메라로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음성으로 <우체국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0

나만 몰랐던 우체국 서비스

우리 집 우편함에 썩!  
집 앞에서 시작하는 우편함서비스

42

우체국 핫클럽

44

우정 카툰

46

우체통 앞에서

48

POST NEWS

49

우정 알림장

50

POST EVENT

POST-COVERY



postnews.kr  
<우체국과 사람들> 앱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 속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위 다리가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듯  
《우체국과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뜨거운 햇살을 열정으로 가르며.

# 더운 여름철, 우정인들의 가방 속 필수템은?

1위

한 손에 쏙 시원함을 전하는  
손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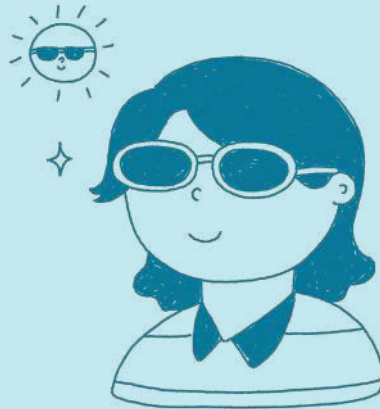
여름철 우정인들의 가방 속 필수템 1위는 단연 손풍기였다.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외근길이나 잠깐의 대기 시간에도 손풍기 하나면 더위가 한결 가신다. 작고 가벼워 가방에 넣어 다니기 좋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어 여름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무더운 하루 속 작은 바람 한 줄기, 손풍기가 선물하는 시원함은 생각보다 크다.

#여름필수템

#작지만강한시원함

2위

눈부신 햇살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강한 햇빛 아래에서 눈을 보호해 주는 선글라스도 많은 우정인들이 꼽은 필수템이다. 특히 출퇴근길이나 야외 업무 중 눈부심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한결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용성은 물론 여름 분위기까지 더해주는 선글라스는 가방 속에 하나쯤 넣어두면 갑자기 쏟아지는 햇볕에도 든든하다.

#선글라스

#눈보호

#여름패션

3위

더위 속 수분 충전  
텀블러



더운 여름일수록 수분 보충은 필수다. 우정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꼽은 아이템은 바로 텀블러였다. 시원한 물이나 얼음 가득한 아이스크림을 담아두면 바쁜 업무 중에도 언제든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외부에 있거나 이동이 많은 날에는 텀블러 속 차가운 한 모금이 지친 몸과 마음을 깨워준다.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는 텀블러는 여름철 가방 속에 빠질 수 없는 똑똑한 필수템이다.

#텀블러

#수분충전

#시원한한모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은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더위와의 싸움이다. 잠깐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여름, 특히 야외 업무와 이동이 많은 날이라면 더위를 식혀줄 나만의 아이템이 더욱 간절해진다. 그렇다면 우정가족들은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가방 속에 무엇을 챙기고 있을까. 우정인들의 여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방 속 필수템을 물어보았다.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JUNO

설문기간 : 2026. 05. 20.~05. 28.  
응답자 수 : 859명  
해당 설문조사는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4위

## 햇볕 아래 작은 그늘 양산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싶은 순간, 양산만큼 든든한 아이템도 없다. 우정인들이 4위로 꼽은 필수템은 양산이다. 생각보다 양산의 힘은 크다. 한낮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도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다. 이제 양산은 더 이상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더위를 현명하게 피하는 필수품에 가깝다. 가방 속 접이식 양산 하나면 뜨거운 여름길도 조금은 가벼워진다.

### 5위

##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선크림



여름 햇살이 강해질수록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선크림. 여름철 가방 속 필수템 5위에 오른 선크림은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다. 출근 전 꼼꼼히 바르는 것은 물론, 땀을 흘리거나 야외에 오래 머무는 날에는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튜브 하나지만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결코 작지 않다.

### 6위

## 언제 어디서나 살랑살랑 부채



여름철 가방 속 필수템 마지막은 부채다. 충전이 필요 없고, 가볍게 펼치기만 하면 바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부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여름 아이템이다. 손풍기처럼 강한 바람은 아니어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는 부채만의 정겨운 매력이 있다. 우체국에서 나눠주는 부채가 최고라는 우정인도 있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 가방 한쪽에 챙겨두어 여름의 정취를 느껴보자. 🌸

- #양산 #작은그늘 #햇빛차단 #선크림 #자외선차단 #피부보호 #부채 #살랑살랑 #여름의정취

## 더운 여름철, 우정인들의 가방 속 필수템은?



1

# 서울서초3동우체국  
# 강도균  
왼손엔  
손풍기  
오른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4

# 북삼우체국  
# 김태규  
등산용 모자,  
선글라스,  
텀블러,  
자외선차단제,  
인공눈물... 등등등..



2

# 이동우체국  
# 문정완  
선글라스!!  
피부는 선크림으로  
보호하고,  
소중한 내 눈은  
선글라스로!  
아울러  
멋짐은 덤!



5

# 완주운주우체국  
# 최병구  
뭐니 뭐니 해도  
손풍기죠...!  
요즘엔  
미니 제품들도  
강력 파워^^



3

# 정보자원관리팀  
# 남시영  
여름 우정인 필수템  
3종 세트  
얼음물 텀블러,  
땀 닦을 손수건,  
그리고  
“오늘도 버틴다”는  
정신력^^



6

# 고흥우체국  
# 이슬기  
얼음 동동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겨있는 텀블러



7



# 경주우체국  
 # 이현진  
 남녀 공용 양산!  
 아프리카보다 덥다는  
 한국의 여름..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양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꽃무늬 NO! 모던  
 원 컬러 양산은 필수!

10



# 양산서창동우체국  
 # 최민석  
 선크림!  
 피부는 젊을 때  
 관리하는 것!

8



# 엄다우체국  
 # 추명희  
 얼음팩,  
 수분 보충 토너,  
 썬스틱 등 많아요!  
 그래서  
 가방이 커요ㅎㅎ

11



# 시흥우체국  
 # 강대희  
 부채!  
 특히 우체국에서  
 나눠주는 접하지 않는  
 부채. 와이프는 매년  
 여름이 온다 싶으면  
 부채부터 받아 오라고  
 재촉합니다.

9



# 구리우체국  
 # 유근섭  
 접이식 부채!  
 충전이 필요 없고,  
 소음도 없어  
 좋아요.

12



# 광적우체국  
 # 이두윤  
 양우산.  
 맑은 날은  
 별 피하기 좋고  
 비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우산은 필수입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과

우디의 특별한 대화

To. 본부장  
From. 우디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인환 본부장과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이하 우디)  
네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박인환 본부장은 MZ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취임 100일의 소회,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목표와 MBTI까지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글. 공주영 사진. 김경수





황서진 주무관

박인환 본부장

서준원 주무관

김은하 주무관

### **박미리 주무관(서인천석남동우체국)**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희는 우정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14기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우디'입니다. 혹시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을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본부장**

그럼요, 우체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통해서 여러분의 영상을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고요(웃음). 앞으로도 최대한 마음껏 자유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중 충주맨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 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껏 활동하면 저는 고마울 것 같아요.

### **황서진 주무관(파주운정동우체국)**

본부장님께서 저희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서 2월 13일에 임명되었고 취임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 **본부장**

제가 30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면서 생긴 일종의 부채 의식과 자부심이 공존해 있어요. 본부장이 되고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조급함, 그게 100일의 소감이라면 소감일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급한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느낌이에요.

### **김은하 주무관(서울도봉창5동우체국)**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취임 후 실시하신 우문현답 릴



레이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문현답을 추진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을까요?

### **본부장**

여기서 '우문현답'은 본래의 사자성어와는 다르게,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의미죠. 진짜 우리 우정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경청하고, 그 의견에 본부가 답하는 과정을 통해 제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근무하며 아는 것들이 있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취임 후 한 달여간 1차로 전국을 누비며 1,000여 명을 만나 1,911개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300개의 실천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60차례 현장을 방문했어요. 몇백 회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퇴임할 때까지 우문현답 릴레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준원 주무관(음성우체국)**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본부장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럼 현재 본부장님께서서 임기 중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본부장**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관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포를 운송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골근격계



postnews.kr

질환도 많잖아요. 그러면 리프트 달린 운송차를 들여오면 한결 수월해지겠죠. 또 차량이나 이륜차도 좀 빨리 바꿔 주고, 우편 기계, 시설 등도 바꿔 보려고 해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제가 본부장직을 마칠 때 '조금 더 일하기 편해지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박미리 주무관(서인천석남동우체국)

마지막으로, 젊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 본부장

우리 젊은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빛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매일 즐거울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남모를 고민과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겠죠. 그래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며 후회 없이 젊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해보겠어요?(웃음) 우리 우체국이 발전하고, 이 든든한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삶과 역량도 함께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



## 비하인드 질문

**Q1. 본부장님 SNS(인스타그램, 엑스) 계정명 'siesta9204'는 무슨 뜻인가요?**

시에스타(siesta)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즐기는 낮잠 문화잖아요. 제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서른 즈음에 입사했는데, 입사 전 30년이 꽤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사 후 30년은 열심히 일하고, 보통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퇴직 후 30년은 낮잠, 시에스타를 즐길 수 있는 평안한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 'siesta30'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쓰고 있어서(일동 웃음), 평소 자주 쓰는 '9204'를 붙였습니다.

**Q2. 본부장님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현실 지향적이고 계획적이라 S(감각형)랑 J(판단형)는 확실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핵인싸여서 E(외향형)였는데, 안타깝게도 체질상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 술을 못 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I(내향형)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다 T(이성적)라고 하고, 친구들은 저를 다 F(감성적)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결론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ISFJ, 직장에서는 ISTJ입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편의 흐름을 지키는

## 강남우체국 민일학 주무관

집배원의 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편물을  
중간 거점으로 분산·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수도팀. 강남우체국 중간수도팀의 민일학  
주무관은 뜨거운 여름날에도 현장을 누비며 우편의  
원활한 흐름을 지키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우체국 중간수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 차 민일학 주무관입니다. 강남우체국은 현재 333명의 집배 인력이 함께하는 최대 규모의 총괄우체국입니다. 많은 우편 물량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많은 인력이 협업하며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중간수도팀은 집배원의 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편물을 중간 거점으로 분산·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편 배달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어요.

### Q. 중간수도팀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의 시작은 우체국으로 들어온 소포를 구분하고 분배하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각 팀에 배정된 집배원들이 중간 거점으로 이송해야 할 물량을 우편낭에 담아 전달하면, 이를 각 거점으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오후에는 취급국에서 접수된 소포를 다시 강남우체국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복귀 후에는 오착 우편물이나 반송 우편물 등 자국 내 우편물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하루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강남우체국  
민일학 주무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Q. 우체국과 집배원을 연결하는 역할인 만큼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집배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인 만큼, 집배 현장과 사무실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물량이 급증하거나 배차 문제로 인해 일부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2차 분량'으로 추가 거점 배달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쯤 전달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집배원들의 배송 상황은 어떤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Q.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철엔 특히 집배 현장이 더 바빠지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우편 탑차는 구조상 운전석 뒤쪽으로 엔진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편입니다. 지난여름, 한창 업무를 보던 중 차량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마치 찜질방 같은 차 안에서 하루 종일 근무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여름철 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대용량 텀블러와 선글라스, 그리고 비오는 날을 대비한 차량용 발수코팅제가 항상 필수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Q. 이번 7+8월호 주제가 '파도, 한여름 우체국, 뜨거운 현장'입니다. 주무관님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전에는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캠핑을 즐기곤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날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낭만 찾아 길을 떠나던 순간들이 가장 역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주무관님이 생각하는 '우체국에서 일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은 무엇인가요?**

우체국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께 친절과 배려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 우정인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온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깊이 실감합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많은 우정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연결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 지면 관계상 아쉽게 게재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우정인의 순간들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  
함께 웃으며 만들어간 활기찬 순간들.  
우정인의 열정과 활력의 순간,  
BEST 컷 6장을 소개합니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두 딸과 공원 산책 중...  
- 제주연동우체국 홍성권



6.3 지방선거  
속초우체국 집배실의 선거공보물  
소통 현장!  
- 속초우체국 박대열



가족과 함께한 트레일런 완주! 어머니는 3위 입상!!  
- 화성우체국 남윤환



날자~ 지금이 청춘!  
- 청주운천동우체국 엄미숙



직원 체육대회 날 활력 넘치는 공놀이 광경  
- 횡성우체국 서근하



우정인재개발원 숲속의 오두막 들어보기 도전!!

- 우정인재개발원 정원일

###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방법 9+10월호 주제:《우체국과 사람들》 창간월 기념

1. 역대 《우체국과 사람들》 사보를 들고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 과거 사진도 환영합니다! (단, 인물 포함 필수)

2. 사진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덧붙여 사연을 신청한다.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연이 소개될 경우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바로가기



# 다시 달리고, 다시 미끄러지며

시흥우체국 이승미 국장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1



2013년과 2015년, 《우체국과 사람들》은 한 우정인을 ‘도전하는 선수’로 기록했다. 핸드사이클 국가대표로서 도로 위를 달리던 그의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 시흥우체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뜨거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차가운 빙판 위에서 또 다른 열정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그를 마주하기 위해서.

글. 백미희 사진. 박시홍

이승미 국장 인터뷰가 실린  
《디지털포스트》 2015년 12월호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시흥우체국 직원들

**휠체어 위의 도전자,  
우체국에서 세상으로 날아오르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도전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휠체어 위라는 신체적 한계를 비웃듯 뜨거운 아스팔트를 질주하고, 이제는 가장 차가운 빙판 위를 누비는 이승미 국장. 그러나 이 화려한 도전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우체국’이었다. 24살에 우정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첫 발령지인 제주에서 14년을 근무한 뒤, 서울과 세종에서의 본부 생활을 거쳐 작년 5월 시흥우체국장으로 부임했다. 올해로 33년 차를 맞은 베테랑 우정인이다.

“어린 시절에는 집과 학교, 성당이 세상의 전부였을 만큼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 다섯 개의 학위를 취득할 만큼 배움에 목말라 있었죠. 그런 제게 우체국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세상과 소통하게 해 준 삶의 통로였습니다.”

우체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온 그의 삶에 어느새 핸드사이클 선수로서의 시간이 더해졌다.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던 순간은 지금도 또렷하다. 경기장에는 동료 우정인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고, 시상대 위에서는 본부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함께 일하던 분들과 그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듯 직장인과 선수의 삶이라는 두 가지 무게를 지탱하며 걸은 길 뒤에는, 늘 멀리서 전해지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곁을 지켜준 동료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다.

**차가운 빙판 위에서 다시 피어난 도전**

10년의 핸드사이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이승미 국장은 5년 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바로 동계 팀 종목인 ‘컬링’이었다. 주중 낮 훈련이라는 환경적 한계에 부딪히자, 아예 직접 팀을 모아 국내 유일의 ‘직장인 컬링 팀’을 창단해 선수 겸 플레이 코치로 활약 중이다. 놀랍게도 창단 3년 만인 2024년 전국체전과 2025년 경기도지사배 대회에서 잇따라 동메달을 획득하며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주중에 우체국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나서, 주말에 컬링 스톤을 투구하고 나면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또 운동으로 키운 근성과 목표 의식이 우체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남고 싶다는 이승미 국장은 후배들에게 단단한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그리고 빙판 위에서 이어진 그의 선택들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 우체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람과 시간을 이어온 한 우정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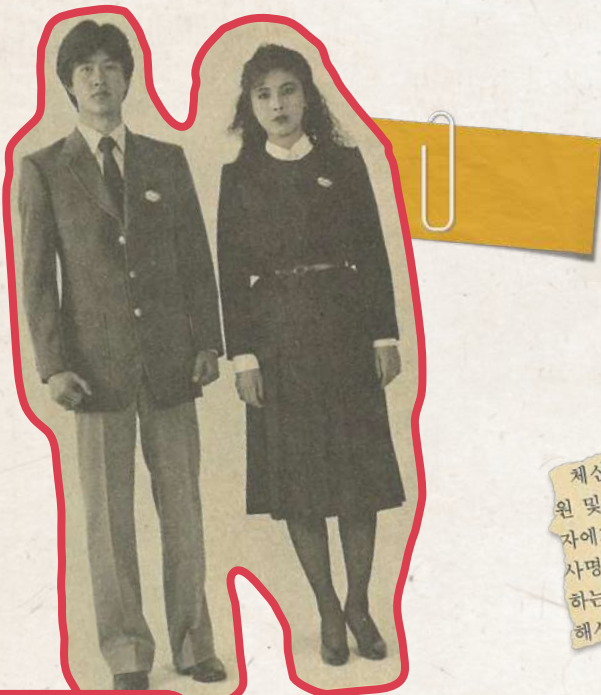


이승미 국장이 선수 및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직장인 컬링 팀'

# 우체국 사보에서 발견한 시대별 우정인 패션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I

줄무늬 셔츠에 헬멧을 쓰고 배달에 나선 집배원, 단정한 유니폼으로 고객을 맞이하던 창구 직원, 체육대회에서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함께한 우체국 가족들까지. 우체국 사보에 등장한 사진들을 통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우정인들의 옷차림을 살펴보자. 글. 편집실 자료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1985년 6월호



제신을 위해 수고  
원 및 창구요원 등  
자에게 국민의 공  
사명감을 고취시켜  
하는 보람을 갖도록 하  
해서는 기존 복제를 과감히  
종사원이  
한 감정이  
봉사자로서의  
하는 것이기 때  
사이에 제신으

1986년 3월호

명감이나 귀속감이  
있을까. 집배원과 창  
사비를 들여 구입한  
의젓하고 품위가 있  
에 출근하여 근무시  
하는 옷이 평상복보  
모두 좋지 않다면 옷  
호감이나 애착을 상  
것이다.  
제신을 위해 수고  
원 및 창구요원 등  
자에게 국민의 공복  
사명감을 고취시켜  
하는 보람을 갖도록  
해서는 기존 복제를  
개선하여 그 모습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1987년 7월호



1997년 11월호



2000년 7월호



2018년 7월호



2025년 7+8월호

1980~1990년대 사보 속 단정한 모자와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골목길에서 우편물을 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창구 직원들 역시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으로 고객을 맞이했다. 당시 우체국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사복보다 통일된 근무복이 두드러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감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한편, 체육대회 단체 사진에서는 1980~1990년대의 특유의 정겨운 일상 패션도 함께 엿볼 수 있다.

2000~2010년대에도 통일된 근무복 형태는 이어졌지만, 지역

과 직무에 따라 셔츠·조끼·재킷 등 색깔과 디자인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무복 본연의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층 실용적인 이미지가 중심이 된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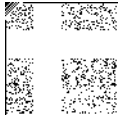
이제는 집배복을 제외한 모든 복장이 자율화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우정인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지만, 단 하나, 국민을 향한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

# HEALTH

# ‘빨리 보면 오래가는 건강을 찾아서’



다이어트 방법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빼느냐’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다. 또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편집실



###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식들

살이 찌는 것은 쉬운데, 살을 빼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어려움만큼 세상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식이 존재한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지방 섭취 비율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고지(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원푸드 다이어트’와 ‘디톡스 주스’,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행하는 연예인 다이어트까지. 여기에 식이섬유→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 순서 다이어트’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혈당 관리 다이어트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행을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치료제까지 등장하며 또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은 체중 감량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각 방식마다 한계와 부작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신중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비만 치료를 돕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의 중요성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목표 역시 무리한 감량보다는 현재 체중의 5~10%를 천천히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루 세 끼를 모두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단 음료 줄이기, 야식 횟수 낮추기, 채소와 단백질 챙기기처럼 작지만 반복 가능한 습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운동 역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 시간 10분 걷기, 퇴근 후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기억한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이다. 잠이 부족하고 마음이 지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식욕 조절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나를 몰아붙이는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더 가볍고 건강한 일상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다. 빠른 성공보다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선택할 때, 체중 감량은 숫자를 넘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 참조

[칼럼] 언제까지 비만치료제를 써야 하나요, 청년의사, 2025. 2. 14. “다이어트, 무작정 감량 말고 대사 환경부터 재설계해야”, 중앙일보, 2026. 1. 22.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 생활습관부터 개선돼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2026. 2. 12.

이웃집 세 곳 중 한 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키우는 동물’을 넘어 가족이자 친구,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글. 편집실

반려견 전용 유모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즘 일상



## #1 개모차, 이제 낫설지 않아요!

반려견 전용 유모차, 일명 ‘개모차’는 이제 흔한 외출 아이템이 됐다. 한때는 보호자에게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던 개모차가 도시형 반려 생활에 적합한 보호 장치로 인식되면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개모차’ 관련 검색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종류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 제품까지 등장하며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 #2 강아지도 유치원 가는 시대!

맞벌이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유치원과 행동발달 훈련소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반려견 반장선거, 다 같이 낮잠 자는 강아지들처럼 귀여운 강아지 유치원 일상이 소개되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 이 공간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맡기는 곳을 넘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보호자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조**

2024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 6. 14.  
 반려인 1천500만 시대... 유모차보다 많이 보이는 개모차, 중부일보, 2026. 1. 6.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농림축산식품부, 2026. 2. 12.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 "조건 갖춰야", 연합뉴스, 2026. 2. 25.



**#3 식사·카페도 우리 댕댕이랑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카페 등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전용 이동 가방이나 개모차 이용을 안내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공간이 자유롭게 개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동반 가능 구역과 이용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펫캉스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기 테마로 '견생샷' 명소, 이색 체험·액티비티, 반려동물 전용 해변, 전용 펜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가평 에텔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양양 멍비치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도 주목받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댕댕여지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지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반려견 동반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중이다. 즐길 거리가 많아진 만큼,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다. 기본 펫티켓까지 지킨다면 반려동물과의 여행은 모두에게 더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다. 🐾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우정사업본부 X KAC 한국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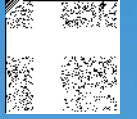
사보 협업 프로젝트

# 호남권 여행자의 든든한 관문 우리가 사랑한 광주공항

광주공항은 오랜 세월 호남권 여행자를 넉넉히 품어 내며 일상과 관광,  
비즈니스를 연결해 왔다. 출장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권 업무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광주-김포 노선, 여행자를 눈 깜짝할 새 푸른 섬에 데려다 놓는 광주-제주 노선이  
지역민의 삶을 한층 풍부하게 한다.

글. <에어포트 포커스> 편집부 사진. 한상무





**출장자의 광주공항,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경로**

분초를 다투는 직장인에게 광주-김포 노선은 업무 효율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이동 수단이다. 고속철도 정차역인 광주송정역, 광주 도시철도1호선 공항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 검색부터 탑승까지 동선도 간결하다.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출장 중 필요한 서류를 즉석에서 마련해 주고, 곳곳에 자리한 휴대기기 충전기는 이동 중 배터리 방전을 예방한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면 기내 환경은 온전한 업무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동 시간을 활용해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서울 상공에 다다른다. 60분 만에 수도권 업무 현장에 다다른 이용객은 하차 후 수도권 전철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해 편리한 연계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시작과 마무리를 광주공항이 돕는다.

**여행자의 광주공항, 푸른 바다를 향한 하늘길**

휴가를 앞둔 이에게 광주-제주 노선은 근사한 선택이다. 공항에 들어서자 1층 대합실에 놓인 필름카메라 자판기가 아날로그 감수성을 자극하니, 근사한 제주의 풍광을 기록할 필름과 카메라를 손에 쥐고 길을 나선다. 손바닥 정맥 정보로 수속하는 바이오 인증 전용 통로는 탑승 절차를 한결 가볍게 하고, 넓은 대합실과 푸드 코트, 유아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피로와 긴장을 완화한다.

이제 비행을 즐길 시간. 창밖으로 서남해안의 유려한 다도해가 흐른다. 순항 고도에 접어들어 숨을 고르다 보면 비행기는 어느새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 위를 유영한다. 도착 후 제주국제공항의 렌터카 셔틀 거점과 대중교통망을 이용하면 섬 어디든 손쉽게 이동한다. 일상을 떠나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 그 첫 단추를 광주공항이 기분 좋게 채운다. ✈️



QR 코드를 스캔하면  
광주공항과 광주광산우체국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공항**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숫자로 보는 광주공항**

**60min** 광주공항-제주국제  
공항비행 시간

**2,013,261명** 연간이용객

**약5,516명** 하루 평균 이용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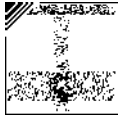
**13,421편** 연간운항편 합계

\* 2025년 5월~2026년 4월 기준



빛고을 광주의 든든한 이웃  
광주광산우체국





광주광산우체국은 빛고을 광주의 서북부를 지키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온 우체국이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주민들의 하루 가까이에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다.

글. 편집실 사진. 김성재, 광주광산우체국

# POST OFFICE





광주광산우체국 전경



소포영업실 마케팅팀의 탄탄한 팀워크가 광주광산우체국의 소포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되고 있다.

### 현장이 살아야 우정도 산다

광주광산우체국이 위치한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  
가 함께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주공항과 광주송  
정역을 품은 광역 교통의 거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속  
에서 광주광산우체국은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넘어, 주민  
곁에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잇는 든든한 국가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1913년 송정우편소 설치를 시작으로 송정  
우편국, 송정우체국을 거쳐 1988년 오늘의 ‘광주광산우체  
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으며, 1996년 우산동 청사 이전과  
2015년 청사 증축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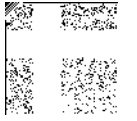
광주광산우체국의 경쟁력은 현장을 살피는 따뜻한 리더십  
과 탄탄한 영업력에서 비롯된다. 최재혁 국장은 매일 아침  
집배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안전사  
고 예방을 독려하며, 매주 수요일 ‘집배안전 행복충전소’를  
운영해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포영업실 역시 광주광산우체국의 큰 자랑이다. 소포영업  
실 마케터 이재원 주무관은 2년 전 ‘전남청 소포 KP 동아  
리’를 운영하며 소포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마케  
팅·온라인쇼핑 트렌드와 주요 뉴스를 꾸준히 공유해왔다.  
현재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쌓은 지식  
과 활동 경험은 광주광산우체국 소포영업실의 중요한 밑거

### 늘 함께하는 ‘든든한 이웃 같은 우체국’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집배안전 행복충전소 활동을 통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며, 집배원들의 하루 시작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름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명의 마케터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보다 체계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5월 28일 기준 방문소포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약 3만 통 증가했다. 신규 계약도 12건을 달성하며 광주광산우체국만의 독보적인 소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 3대가 이어온 우정가족의 자부심

광주광산우체국에는 조금 특별한 우정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배원으로 동고동락하는 최상욱 주무관(부)과 최준호 주무관(자)이다. 여기에 딸 최유진 주무관도 하남동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우정의 길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3대 우정가족’이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지역 주민들과 정겹게 인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최준호 주무관은 자연스럽게 우체국 일을 가까이에서 접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길로 이어졌고, 현재는 한 일터에서 근무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고 있다.

“직접 집배 업무를 해보며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의 노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집배원이 되었구나’, ‘3대에 걸친 우정가족이라 대단하다’고 말해줄 때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한 사건보다도 바쁜 명절 기간, 무더운 여름, 매서운 겨울



광주광산우체국 창구 직원들

울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격려했던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에게는 든든한 동료로, 지역 주민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집배원으로 광산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광주광산우체국의 부자(父子) 집배원인 최상욱·최준호 주무관

### 함께한 30년, 함께할 든든한 미래

현재 청사에서 30주년을 맞이한 광주광산우체국은 단순한 국가기관을 넘어,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든든한 이웃 같은 우체국’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언제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것. 지난 30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광주광산우체국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연결하며 광산구의 밝은 내일을 함께 써 내려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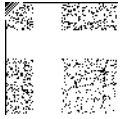
# 음악이 머무른 저녁, 가족의 시간이 깊어진다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우체국 힐링 음악회'



봄바람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4월의 저녁,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을 위한 '우체국 힐링 음악회'가 열렸다. 지브리와 디즈니 영화음악을 친근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풀어낸 이번 공연은 일상 속 심과 위로를 전하는 가족 맞춤형 문화공연이었다.

글. 백미희 사진. 이대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은 지난 4월 28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한부모 가정과 임신부 가족을 위한 ‘우체국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브리와 디즈니 영화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약 950석 규모의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됐으며,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백윤학 지휘자가 무대를 맡았다. 《천공의 섬 라퐁타》, 《라이온 킹》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중심으로 총 2부 구성,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참여자는 세종시 및 지역 복지기관,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됐으며, 한부모 가정과 임신부 가족 등 약 750명이 초청 및 신청을 통해 공연을 함께했다.



### 설렘으로 채워진 공연 전 풍경

바쁜 하루의 끝자락, 세종예술의전당 로비에는 공연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공연 1시간 전부터 공간은 조용한 설렘으로 채워졌고, 입구에는 공연 배너와 현수막이 관객들을 맞이했다. 팸플릿이 가지런히 놓인 로비에서는 포스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가족들의 모습도 이어졌다. 할머니 품에 안긴 아기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초등학생,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임신부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가족들이 모여며 현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 MINI INTERVIEW-1



### “음악이, 일상의 무게를 덜어내는 치유가 되길”

#### 백윤학 지휘자

오케스트라 공연장은 일상과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관객을 각자의 상상 속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죠. 특히 이번 ‘우체국 힐링 음악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아이와 부모님 모두 익숙한 곡들로 선곡을 채웠습니다. 초반엔 차분한 깊이로 시작해 후반엔 밝고 경쾌하게 이어지도록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 같은 음악처럼, 오늘 이 시간이 일상의 무게를 덜어내는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 엄마, 여동생과 함께 온 초등학생 김민성 군은 “가족과 처음 음악회에 와서 너무 기대된다.”라며 “디즈니와 지브리 음악을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었다.”라고 기대감 넘치는 심정을 전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악회 소식을 접했다는 임신부 서이란 씨는 “남편과 함께 퇴근하고 힐링하러 왔다.”라며 “우체국에서 연락을 주신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라고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 세 아이와 공연장에 방문한 유아영 씨는 “온라인 홍보 덕에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잡았다.”라며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게 다 보인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 큰 선물처럼 느껴진다.”라고 웃어 보였다. 로비는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니라, 각 가족의 기대와 이야기가 피어나는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 가족을 위한 음악, 함께 만드는 무대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빠르게 음악 속으로 스며들었다. 익숙한 선율이 흐르면 곳곳에서 반가운 표정이 번졌고, 처음 듣는 곡이 나올 때면 관객들은 팸플릿을 펼쳐 곡 정보를 확인하며 음악에 집중했다. 특히 《이웃집 토토로》연주에서는 무대의 유도에 맞춰 관객들이 손동작을 함께 따라 하며 웃음을 나누는 장면이 펼쳐졌다. 아이와 어른이 구분 없이 함께 반응하고 즐기는 모

습은 이번 공연의 취지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인터미션 시간에도 가족들은 공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여운을 이어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박지선 씨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고, 어느새 저도 손동작을 따라 하며 즐기게 됐다.”라며 “잘 모르는 곡도 있었지만 모든 노래가 좋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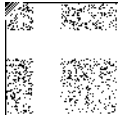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가족이 함께 호흡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화와 위로를 전하는 우체국

‘우체국 힐링 음악회’는 우체국 공익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에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공감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바쁜 일상과 육아, 생활 속 스트레스 등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감동의 시간을 제공하며,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공연장을 찾은 가족들은 익숙한 영화음악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함께 즐기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우체국공익재단 담당자인 문상훈 부장은 “이번 음악회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일상 속 쉽고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공연장을 찾은 가족들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 문화가 주는 치유와 위로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은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편지와 우편을 넘어 마음과 온기를 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음악회는 우체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관객 안내와 좌석 유도, 입장 및 현장 질서 유지, 취약계층 관람객에 대한 밀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봉사단의 세심한 지원이 더해지며 관객들은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현장 지원에 참여한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 김수혁 주무관은 “음악회의 취지에 공감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관객들이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예술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위로와 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가족의 웃음과 음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이 어우러진 이날의 풍경은 우체국형 문화복지의 가능성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우체국 힐링 음악회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MINI INTERVIEW-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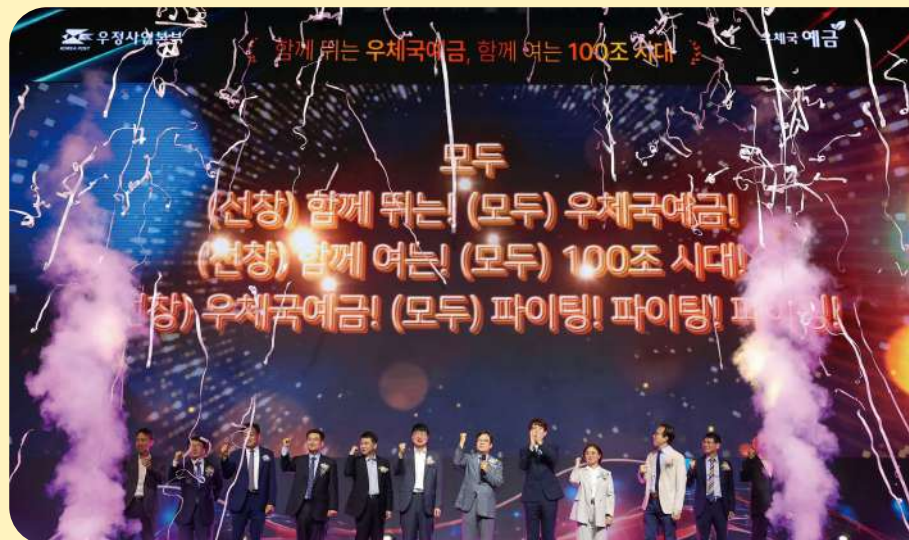
### 우체국공익재단 담당자 문상훈 부장

Q. 행사에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  
‘우체국 힐링 음악회’는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육아나 일상의 어려움으로 휴식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편하게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객이 온전히 음악에 몰입하며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가 일상의 걱정과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을 통해 편안한 심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기억을 남기셨으면 합니다.

# 한 해의 결실을 나누고 우정의 내일을 다짐하다

우정사업·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정사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우정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전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25년도 우정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우체국보험·우체국  
예금 연도대상 시상식을 잇달아  
개최했다.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우정인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글: 편집실 사진: 우정사업본부



**한 해의 성과에 박수를!**

**우정사업 연도대상 시상식**

지난 4월 29일, 우정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우정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평가 실적 우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공헌, 우편·예금·보험 사업성과 우수 개인 및 기관 등 총 79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 실적 우수와 공공서비스 활성화 공헌 분야가 새롭게 조명되며, 우정사업이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과 현장 중심의 성과를 더욱 의미 있게 되새겼다.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은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함께 나누며 동료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우정 서비스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다졌다.

서 80국, 개인 16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를 함께 나눴다. 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 역시 고객의 생활 가까이에서 믿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인들의 노력이 빛난 시간이었으며, 관서 및 개인 수상자 79명이 무대에 올라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각 시상식에서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오늘의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우정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우정인들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우정 서비스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

**국민 곁의 금융 파트너!**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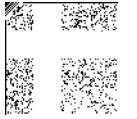
우정사업 통합 연도대상 시상식에 이어 각 사업 분야의 성과를 별도로 조명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5월 7일에는 ‘2025년도 우체국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6월 17일에는 ‘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이 이어져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관서와 직원들을 축하했다. 우체국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은 관



# 우리 집 우편함에 쏙! 집 앞에서 시작하는 우편함서비스




작고 가벼운 물건을 보낼 때마다 우체국 창구 방문이 번거롭게 느껴졌다면, 이제 '우편함서비스'에 주목해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우편물을 더 쉽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편함서비스가 집 앞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우편 생활을 열어준다. 정리. 편집실




## 우체국 방문 없이 집 앞에서 간편하게

최근 개인 간 거래와 소형물품 발송이 늘어나면서, 우편물을 보다 편리하게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우체국 방문 없이 주소지 우편함을 통해 소형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우편함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의 우편 이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에서 간편하게 사전접수한 뒤, 우편물을 주소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집배원이 수거해 접수와 배달까지 이어준다. 바쁜 일정으로 우체국을 찾기 어려운 날에도, 사전접수만 마치면 집에서도 우편 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 서비스 안내



우체국 앱/웹  
사전접수(가결제)



주소지 우편함에  
투함



집배원이 직접 수거  
(가결제 카드로 결제)



### 우편함에 넣기 전 확인하세요!

우편함서비스 대상 우편물은 서신, 통화 등을 제외한 가로·세로·높이를 합해 45cm 이하, 무게 500g 이하인 소형포장우편물로 우편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지나치게 두껍거나 큰 포장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규격에 맞는 모든 포장 용기가 사용 가능하며, 우체국 0호 상자를 이용하면 좋다.

송달 속도는 일반형과 빠른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배달은 수취인의 우편함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다만 우편함이 없거나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문 앞 배달도 가능하다. 사전접수번호가 없거나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규격을 초과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 또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 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체국 서비스는 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때 ‘우편함서비스’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줄 것이다. 집 앞 우편함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우편 생활. 더 쉽고 편리하게 이어지는 우체국 서비스를 경험해보자. 📧

### 우편함서비스

구분	일반형	빠른형
이용요금	1,800원	2,400원
송달기일	접수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접수일 다음날부터 1일 이내
접수채널	우편함 수거	좌동
종적조회	접수와 배달 제공	접수 ~ 배달 전 과정 제공
배달방법	우편함에 배달하되, 곤란한 경우(우편함이 없는 경우 등) 문전 배송도 가능	

※ 접수일 수거 기준 : 전일 또는 당일 7시까지 (사전 신청+우편함 투함) 완료된 우편물

# 우체국 핫클립

우체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세요! 출퇴근길처럼 무료한 잠깐의 시간 속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요.

정리. 편집실



## 블랙핑크 기념우표

블랙핑크 기념우표 판매

2026.06.16.(TUE) 09:00 ~ 2026.07.31.(FRI) 24:00

구매처 인터넷우체국(KR) / 우체국 우표 해외판매몰(INTERNATIONAL)

판매가 기념우표 10종 8,800원 / 기념우표 패킷 25,000원



영상 바로가기



### 소문의 우체국

1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해온 한국우정  
오늘도 더 빠르고,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걸어온 긴 시간만큼 고객님의 소중한 마음을  
오래 이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바로가기



### 우체국 새로봄 적금

월 3만 원 이상, 6개월 만기.  
오늘의 나를 위한 약속이 내일의 새로운 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차곡차곡 지켜낸 시간을 우체국이 함께 응원합니다!



영상 바로가기



### 우체국 예금서포터즈 스쿨어택(승실대·충남대)

우체국예금서포터즈가 캠퍼스에 뒀다구요!??  
우체국 예금을 더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우체국예금서포터즈가 승실대와 충남대를 찾았습니다!  
우체국예금서포터즈의 첫 번째 활동,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 우체국쇼핑 라이브커머스 사내 쇼호스트 양성교육

우체국쇼핑의 새로운 소통을 준비하는 시간!  
우체국쇼핑 라이브커머스 활성화를 위해 사내 쇼호스트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참여자들의 진솔한 후기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 태권 브이와 어린 화가

그림. 몽냥



이 귀요미는...



디자이너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살 제 딸 콕콕이에요.

자동차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짹!



딱히 뭐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또래에 비해 그림도 잘 그리고

엄마! 이거 봐.

와

진짜 너가 그렸어?



만화 캐릭터도 어찌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주토피아 주디, 닉, 겨울왕국 안나, 엘사.

케데헌 루미, 포켓몬스터 파이리랑 피카츄 좋아해.



장차 커서 꿈이 '화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콕콕이는 커서 뭐 될 거야?

나?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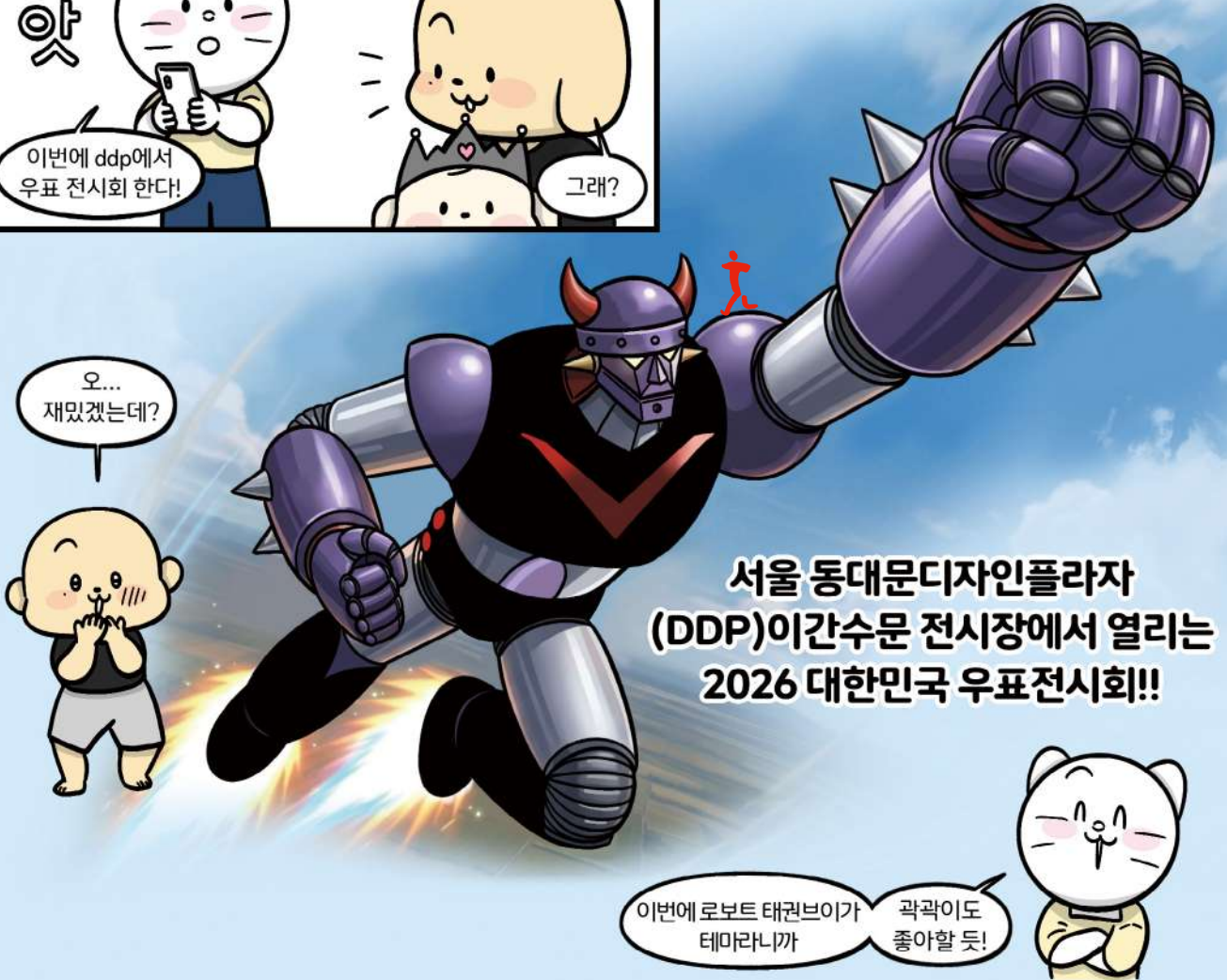
무료한 저희 부부 일상에 단비 같은 존재랍니다.

화가  
원지 알아?

우리 DNA 열 일 했네.



**7월 29일(수)**  
**~ 8월 2일(일)까지 5일간**



독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해 '우체통 앞에서'에 소개합니다.

✉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E-MAIL : hj1911@posa.or.kr

## First Story

# 친애하는 너에게



from. 엄지영(경남 창원군)

이 편지는 읽자마자 잊어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제발 내게 편지를 쓰지 말아 줘.

팬히 종이를 꺼내고, 펜을 굴리고, 첫 문장을 고민하는 수고 따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쁜 세상에 그런 느린 마음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 절대로 편지를 쓰지 마.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길가의 꽃이 피었는지,

문득 내 생각이 났는지 같은 이야기도 굳이 적지 말고.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떠오른 생각들도 마음속에만 간직해 줘.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사실 별것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웃는 날이 많은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가끔 나를 떠올리기는 하는지. 물론 답장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네. 편지를 쓰지 말라고 적을수록 네 글씨가 보고 싶어져.

봉투를 열 때의 바스락거림도, 종이 위에 서툴게 남겨진 문장들도 자꾸 생각이 나.

어쩌면 나는 지금 가장 모순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너에게서 받은 모서리가 닳은 오래된 편지를 더 이상은 보관하고 싶지 않아.

그 안에 담긴 우리가 조금도 늙지 않아서 괜히 슬퍼지잖아.

내 말은 듣지 않는 너에게 다시 한 번 말할게

네가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별이자 가장 오래 남는 마음을 기어코 받고 싶지 않다고.



## Second Story

###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



from. 이지은(경기도 수원시)

《데미안》을 읽고 자신감이 생겨 곧바로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읽었다.

이 책 역시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진정한 깨달음은 누군가의 가르침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주인공 싯다르타는 평생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삶을 경험한다. 사문이 되어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세속으로 나아가 부와 쾌락을 누리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가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자신만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책을 읽으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도, 결국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작년까지의 나는 많이 방황했다.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컸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늘 걸도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내 분수와 한계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던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다.

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생각이 정리된 것인지, 책을 읽으며 시야가 넓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며 생각이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사실이다.

그 변화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독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싶다.

책을 읽으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접하다 보니 예전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내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야겠다.

# Post News

## 1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현장 점검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4일 서울마포우체국과 서대문우체국을 방문해 선거우편물 소통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취급된 선거우편물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 문 등 총 3,462만 통에 달하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선거우편물을 완벽히 소통해냈다. \*본부장 SNS(인스타그램, 엑스) 계정: ‘siesta9204’



## 2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 통계조사 참여한다

전국의 촘촘한 인프라망을 보유한 우체국이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국가 통계조사에 참여한다. 우정사업본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5월 6일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집배원들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통계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 3 도로에 쓰러진 노인 구한 집배원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5월 12일 충북 서청주우체국을 방문해, 도로 위에 홀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고령의 주민을 구한 김의섭 집배원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는 집배원들은 우편물 배달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살피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4 ‘6·10만세 운동’, ‘블랙핑크’ 기념우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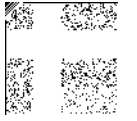
대한독립을 향한 염원과 역사적 현장을 담은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우표와 K-pop의 세계적 확산 및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블랙핑크’ 기념우표가 각각 지난 6월 10일과 6월 16일 발행됐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 5 《우체국과 사람들》 카카오 채널 개설

《우체국과 사람들》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제 매달 사보 발행 소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신규 친구 추가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벤트와 풍성한 혜택으로 독자들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소속·산하기관 소식

1

서울지방우정청  
이륜차 주행 실습 교육 진행



서울지방우정청은 최근 임용된 신규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주행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집배 업무의 핵심 이동 수단인 이륜차 운전 숙련도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7개 총괄국 집배원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이륜차 교육 전문 기관에서 실습 중심으로 교육했다.

2

충청지방우정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아이들 꿈에 날개 달아준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지난 4월 30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복지 소외계층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세군 대전혜생원 내 초·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아이들의 소원을 바탕으로 '야구용품', '게이밍 마우스', '드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했다.

3

강원지방우정청  
AI 핵심인재 동아리 운영



강원지방우정청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을 목표로, 지난 6월 10일 정재훈 청장과 희망 직원 등 16명이 참여하는 AI 핵심인재 동아리 'ALL(AI Learn&Lead)'을 공식 발족했다. 앞으로 회원들은 AI 기반 업무 과제 발굴과 수행, 심화 교육 수강, 최신 기술 실습 등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KSQI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지난 6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올해로 통산 15회, 8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편고객센터는 2003년 개소 이후 우편서비스 관련 상담과 민원을 처리해왔으며, 누적 상담 2억 콜을 돌파했다.

# 독자 참여

2026 7+8 VOL.771



2026년 5+6월호  
정답

- ① 바닷가 우체국
- ② 0
- ③ 40

## EVENT. 1

### 알쏭달쏭 퀴즈

이번 호를 읽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총 1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① 금융취약계층의 저축 습관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금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새로 봄 우체국 공익적금 2. 희망 두 배 우체국 적금 3. 함께 성장 우체국 적금
- ② 10년간의 핸드사이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이승미 국장이 5년 전 새롭게 도전한 동계 팀 종목은?  
1. 스노보드 2. 아이스하키 3. 컬링
- ③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은 지난 4월 28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한부모 가정과 임신부 가족을 위한 '우체국 OO 음악회'를 개최했다.  
1. 힐링 2. 사랑 3. 행복

## EVENT. 2

### 체국이를 찾아라!



책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곳에 숨겨진 2명의 체국이를 찾아보세요. 체국이를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EVENT. 3

### 할 말 있어요

<우체국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postnews.kr)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채택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모바일 참여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벤트 PC 참여 방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우체국과 사람들>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해  
참여해주세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기한 2026년 8월 28일(금)**

\* 이벤트는 웹진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체통 앞에서'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하여 <우체국과 사람들>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 보낼 곳**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 메일 hj1911@posa.or.kr 📍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5층

※ 원고는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안내 QR코드



하늘이 무너져도

# 속아날 보험은 있다



유병자도 간편하게 들 수 있는  
(무) **우체국간편한  
건강보험 2606**

필요한 당신에게  
돈돈한 화답으로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인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등) 및 보장개시일 및 지급 한도, 면책금액 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개인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신락서는 청약 철회를 원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중요내용 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누락 등의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갱신 나이, 추가 등은 약관 및 기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상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가 대상이므로, 일반상사 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일반상사보험의 경우 간편 심사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상사 보험의 경우 건강 상태나 가입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은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http://www.epostlife.go.kr), 모바일 앱 [m.epostlife.go.kr](http://m.epostlife.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우체국F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00-260526-1019-P500129(26.6.17.-27.6.16.))



《우체국과 사람들》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 COVER STORY

1946년 10월 창간,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람들》의 표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네 번째 제호 《디지털포스트》의 2001년 8월호(vol.511) 표지를  
재해석했습니다.